자체기술정착으로 개방시대에 대비

韓國電力技術株式會社

지난 1991년은 전력수요급증에 따른 전력예비율부족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력업계의 전종사자들이 가슴을 조리는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다. 다행히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에너지절약운동에 대한 전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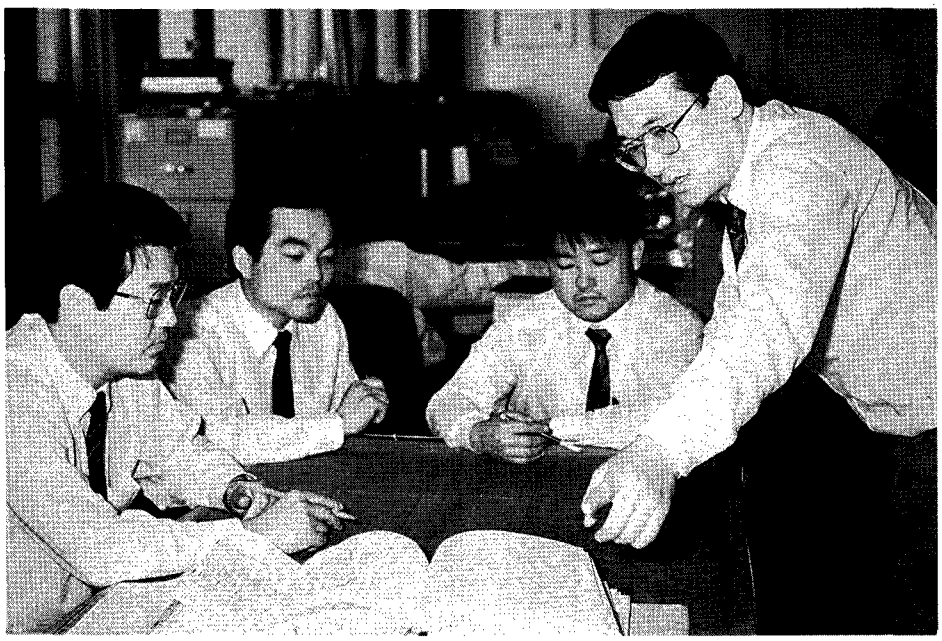
국내기술용역업계에서는 UR 협상에 의한 개방에 앞서 원자력기술용역업이 전면개방되어 자유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외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영광원자력 3, 4호기, 보령화력 3, 4호기, 삼천포화력 1, 2호기, 서인천복합화력 등 피크에 이른 대형사업들을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며 월성원자력 2호기사업의 본격추진과 아울러 울진원자력 3, 4호기사업을 신규로 수주하였다. 울진원자력 3, 4호기사업은 그간 우리 회사가 수행해온 원전표준화설계사업의 결과와 영광 3, 4호기사업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반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원자력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그리고 업무량의 폭주에 따라 사업부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간접부문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기간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경쟁과 기술패권주의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내의 기술개발연구기구를 확대개편함으로써 자체기술의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금년은 장기적으로 전력공급의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자체기술의 정착 및 국제경쟁력제고를 통하여 사업범위를 확장, 다변화하고 해외시장을 적극개발하는 개척자정신으로 개방화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올해는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韓技化」된 기술을 정착, 발전시키고자 한다.

국제적 기술경쟁시대에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국가의 에너지원인 발전소를 설계하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국내엔지니어링업계의 선도자로서 독자적인 자체기술을 보유한 선진 A/E 社가 되기 위해 적극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韓技 고유의 기준, 절차, 방식을 집대성하여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설계기술자립을 마무리해 나갈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성에 적합한 「韓技化」된 기술을 정착, 발전시키려고 한다. 또한 설계, 구매, 건설관리업무 등 종합설계 전역



무수행능력을 배양하여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능하면 국내에서 일괄수주방식의 계약수행경험을 쌓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신뢰받는 회사가 되고자 한다.

전력기술의 자립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전원개발사업의 확대수정에 따른 책임의 완수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신뢰받는 엔지니어링회사가 되어야겠다. 발전소의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최소비용으로 최적의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조직을 재점검, 강화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전사적인 목표의식을 함양하고 목표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공정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셋째, 생산성을 혁신하고자 한다.

전세계적인 시장개방화추세에 대처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전원개발계획의 확대수정으로 증가된 사업물량의 소화와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발전소의 설계를 위해서는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전산설비를 확충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전직원의 전산능력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설계업무의 자동화(CAD/CAE)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활용을 지도할 전담기구를 구성, 운영할 것이다. 또한 생산성증대를 통해 동남아지역을 대상으로 경쟁우위사업을 선정하고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여 해외사업수주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넷째, 근무기풍을 쇄신하고자 한다.

건전한 윤리의식과 근무질서가 확립된 직장, 노사간에 생산적이고 화합하는 직장이 되도록 근무기풍을 쇄신해 나가고자 한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확립, 실시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강화할 것이며 국가전력산업의 Think tank로서 자기계발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사내의 각종 직원모임을 적극 지원하여 사원들의 건전한 취미, 여가활동을 권장하고 사내대학(원)의 확대를 통해 연구하며 공부하는 기풍을 조성함으로써 긍지와 희망에 찬 평생직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특히 올해에는 사옥건설을 착공하여 한기인의 오랜 숙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